

하찮은 존재들에 대한 재발견

예술공간 집, 8월 한달간 '김제민&이호동'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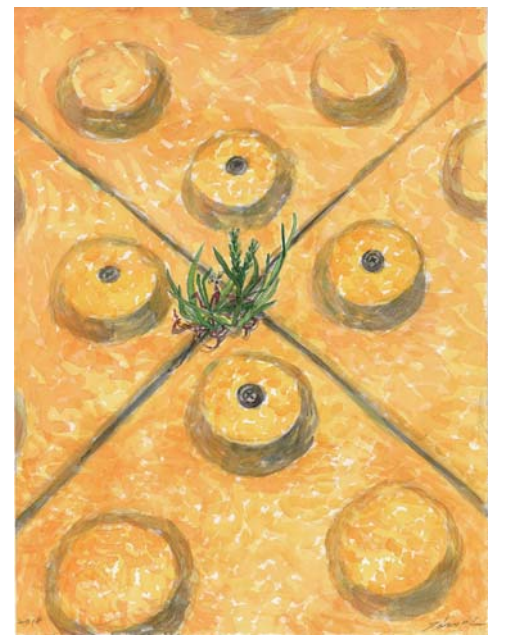


이호동 작 '세상에 모든 오브제로 놀다-생각하는 사람'

하찮은 것 없는 '풀'과 삶의 바깥으로 밀려난 '사물'들을 다시 재발견해 작품으로 보여주는 두 작가의 전시가 열린다. 동구 장동 '예술공간 집'에서 8월 한달 간 선보이는 전시로 '존재의 재발견-김제민&이호동' 전이다. 예술공간 집에서는 개관 이후 꾸준히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매칭해보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세대간, 장르간 매칭 등을 통해 작품을 새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획전시들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전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제민 교수와 지역에서 예술과 놀이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호동 작가 두 명의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다. 전시명 '존재의 재발견'에서도 알 수 있듯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두 작가의 독특한 시선을 즐겁게 엿볼 수 있다. 김제민 작가는 '풀'을 그린다. 식물이라 명명된

다듬어진 풀이 아닌 잡초들이다. 고개만 돌리면 어디서나 보이는 잡초들이지만 그림으로 풀은 재발견되며, '특별한 풀'로 변모해 보여진다. 마치 인간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풀'로, 체력단련을 하고, 스포츠 경기를 한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들 삶이 연상된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가녀린 풀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작가 특유의 재치가 빛나는 그림의 매력 덕분에 너무 무겁지 않게 즐겁게 작품과 마주할 수 있다. 화면 가득 뻗어있는 그려진 식물들의 모습에서는 '그리기'라는 방식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연필, 먹, 목탄 등 다양한 재료로 풀을 드로잉하는 작가는 "풀이야말로 자연의 완벽한 드로잉이고 그저 그것을 따라 그린다"고 한다. 의인화된 풀과 그대로의 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풀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이 그려지며 재발견된

다. 이호동 작가는 쓸모를 다한 사물들을 다시 바라보며 재발견한다.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한껏 독차지했겠지만 손길에서 멀어지고 버려진 사물들로, 작가는 새로운 물건보다는 버려지고 내려놓아진 물건들을 선택하고 조합해나간다.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들에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물건들의 조합이 특별한 인상을 안겨준다. 버려졌지만 버려지지 않은 물건들은 작품으로 재발견되며 유쾌하게 관람객들과 만난다. 전시를 기획한 문화영 대표는 "세상 가장 하찮은 것 같은 잡초와 쓸모없이 버려진 사물들이지만 두 작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시선의 밖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를 권했다. 김제민 작가는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해 서양화를 전



김제민 작 'Untitled'

공, 동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호동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동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전시시간 중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의 062-233-3342. /이연수 기자



교방굿거리 공연 장면.

우리 소리로 고품격 휴가를

남도국악원 3일 국악의 향연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오는 3일 오후 7시 진악당에서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마련한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무료 공연은 유명 계곡이나 피서지를 찾아 무더위를 쫓는 것도 좋지만, 자연의 소리와 숨결을 간직한 우리 음악으로 진정한 고품격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악합주 '호적풍류', 판소리 적벽가 중 '불 지르느' 대목, 전통춤 '살풀이', '교방굿거리', 민요 '오돌또기, 동당게타령, 이어도사나, 응해야', 타악 '밀양 오복춤'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연수 기자

상상속 세상 굴리굴리의 '와글와글 숲'

롯데갤러리,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김현 순회전

그림책 작가이자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현 작가(화명 굴리굴리)의 일러스트 원화, 도서, 아트상품 전시 및 체험전시가 마련된다. 롯데갤러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굴리굴리의 '와글와글 숲' 전시를 2일부터 진행한다. 대전 롯데갤러리 전시에 이어 순회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일러스트 작품 70여점과 도서 및 아트상품 등이 선보인다. 작가는 본인의 인기 캐릭터인 데이지, 포비, 시로, 루피 등 '굴리굴리 프렌즈'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순수하고 투명했던 어린 시절의 감성을 사랑스럽게 그려냈다. 전시명인 '와글와글 숲'은 굴리굴리 작가의 그림책 친구들이 살고 있는 상상 속 세상을 뜻한다. 스토리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겪게 되는 모험과 판타지 가득한 일상이 주를 이루는데, 로켓으로 떠나는 우주 비행, 무인도에 표류해 별레들과 일광욕을 즐기고, 비밀 계곡에서 달님, 별님과 함께 목욕을 즐기는 등 동심 가득한 유년 시절의 판타지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또한 2017년 스타필드 고양 오픈 이벤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고양이 캐릭터 '핑크비비'부터 마루, 팬지, 로이, 토리, 팽이까지 굴리굴리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숲속 이야기



Holiday.

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롯데갤러리 관계자는 "천진함과 상상력, 순수함으로 일상에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는 굴리굴리 친구들을 통해 있고 있었던 유년시절의 따스한 감성까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김현 작가는 '굴리굴리'라는 화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 작가다. 국내를 비롯한 유럽 7-8개국에서 그림책을 출판했다. 한편 이번 전시의 관람객 체험프로그램으로 부채 만들기, 스탬프 플레이(무료), 예코백 만들기(유료)가 진행된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연수 기자



데이비드 브라운 작.

상상을 콘텐츠로 실현하다

ACC '크리에이터스 인 랩' 창작물 공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인 창작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ACC_R '크리에이터스 인 랩'의 상반기 활동 작가들이 오는 5일까지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이번 '크리에이터스 인 랩'은 ACC 창작자센터에서 상반기 동안 상주하며 융·복합 콘텐츠 창작 활동에 매진한 창작자들의 상상력을 담은 창작물을 공개하는 행사다. 융·복합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관객참여 퍼포먼스, 설치미술, 인터랙션 아트 등

23인 창작자들의 실험적 예술을 다룬다. 관객들은 '믹스드 리얼리티(Mixed Reality)', '미디어 서피스(Media Surface)',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인공지능 비주얼&사운드(A.I Visual&Sound)' 분야부터 스튜디오제작형과 자유연구형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경험할 수 있다. 또 ACC 미디어월을 통해, 히로키 미야자키(일본), 데이비드 브라운(미국), 두 명의 작가의 개성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DK 다케이 주식회사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www.e-dk.co.kr

최자민 김희경 스타레오 공기청정기 케어센터 mini air DK

제습기 이젠 사계절 필수품입니다.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상담) 1544-1154